

# 러시아 바로네즈 소식

2017년 4월 20일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영혼은 선교지이다. 그리스도가 있는 모든 영혼은 선교사이다.” (딤했 10:15)

**‘선교지’에서 ‘선교사’로서 9년….**

‘선교지’ 러시아 바로네즈에서 ‘선교사’로 9년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안식년을 준비하며 지난 시간에 대한 많은 물음이 있습니다. 9년간 희로애락을 경험한 사역과 삶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이며 돌아봄입니다. ‘우리는 미래뿐 아니라, 과거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명언을 기억합니다. 이 여정을 사랑과 기도, 물질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한국엔 ‘꽃눈’이, 바로네즈엔 ‘눈꽃’이….**

2017년 전반기 사역과 삶을 나누고 부활절 예배 후기를 나누려는 오늘, 바로네즈에는 눈이 펄펄 내립니다. 4월 중순에 함박눈이라.... 가끔씩 있는 일이라 이제는 그리 놀랄만한 일도 아닌데 아직도 새삼 놀랍습니다. 과연 우리가 동토의 땅, 눈의 나라 러시아에 살고 있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직시하게 됩니다. 저희도 봄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바로네즈 벤엘교회 사역, 농부의 마음으로….**

4월 16일, 부활절 행사 후 바로네즈에서 30킬로미터 떨어진 외곽에서 매주 교회에 나오는 라이사 성도님 댁을 청년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금년 농사를 위해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농부의 자식들인 비탈리, 미셀 등은 능숙하게 일하는데, 저는 땀이 비 오듯, 지금도 온 삭신이 쑹습니다. 맛있는 저녁을 대접 받으면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매년 똑같은 기대로 씨를 뿌린답니다. 그런데 같은 땅에서 재작년엔 8포대의 감자를, 작년에는 1포대의 감자를 거두었답니다. 더 좋은 결실을 기대하며 금년에도 또 열심히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립니다.

사역도 농부의 마음과 같습니다. 2차 사역에도 기도와 기대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2차 사역을 마감하면서 기쁨과 아쉬움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영혼을 다루는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2017년 부활절, 부활의 주님 모시고….**

지난 3월부터 전교인 40일 릴레이 금식,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모임, 목요일에는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부활주일에는 러시아 부활절에 반드시 먹는 꿀리치(부활절 빵)와 달걀을 나눴습니다. 설교 후에는 성가대, 유학생들의 특별 찬양, 어린이 부서의 시 낭송과 율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필리야(인도네시아), 미셀(마다가스카르), 프레스넬(콩고)의 찬양에 모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들은 언어학교 때부터 저희 교회에 출석해서 올해 6월에 의대와 의학대학원, 교육학부를 졸업합니다. 처음엔 선배들의 통역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던 시간을 지나, 지금은 다른 후배들을 위해 설교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교회 청소도 도맡아 하는 청년들입니다.



내년 부활절에는 다 각자의 나라에서 부활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 낯선 땅 러시아 바로네즈에서 인종과 언어를 초월해 믿음의 가족으로 만나 서로 깊이 사랑했던 시간들, 함께 이 땅을 위해 무릎 꿇은 모든 시간들에 새삼 감사하며 기쁨과 눈물이 공존하는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 **송희, 환희, 예희의 사춘기, 그 고귀한 인내의 시간들…….**

송희와 환희는 7학년, 예희는 5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러시아 현지 학교에서도 조금 수준이 높은 김나지아에서 공부 중입니다. 1,700여명의 재학생 중에 외국인은 단 세 명, 그들이 이송희, 이환희, 이예희 입니다. 송희와 환희는 5월 21일에 8학년에 진학하는 전공시험을 치룹니다. 환희는 수학-물리반에 진학 예정이며, 송희는 수학-물리 전공과 생물 전공 사이에서 고민 중입니다. 예희도 새롭게 전학한 학교에서 공부와 친구들과 적응하느라 조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아이들이 기특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은 5년만에 한국에 갈 기대에 부풀어 날짜를 세고 있습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하면 눈물이 날 것만 같습니다.

### **제2차 안식년을 위한 특별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 1) 2017년 5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안식년을 보냅니다. 교회들을 방문하고 선교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정이 잘 조정되어 좋은 만남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2) 규정상 다음 사역을 위해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과 3차 사역에 부어주실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 3)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바로네즈 베델교회와 사역자들, 그룹 리더들 그리고 전 성도님들을 위해서 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함박눈을 주셨지만, 내일은 혹은 모레는 햇빛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는 '봄'이란 단어에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동토의 땅에도 이제 곧 초록 생명들이 피어날 것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5월을 지나 6월에 한국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19일. 러시아 바로네즈에서 이성국, 서지연, 이송희, 이환희, 이예희 드립니다.

2017년 전반기 바로네즈에서의 사역과 삶을 나눕니다.



찬양 예배



성가대



부활절 예배 후



교회학교



청년에서 엄마가 된 나타샤



합창대회 참석한 송희, 예희



바로네즈 한글학교 설날 행사



한글학교 비빔밥의 날